

유진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18일 광주문예회관

유진교향악단(상임지휘자 김연주·사진) 제 79회 정기연주회가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베토벤의 '피델리오' 서곡으로 막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이경섭의 '해금협주곡-추상', 모차르트의 '피아노 플루트협주곡 G단조',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뱃노래',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등을 들려준다.

리더스양상블, 문선경(국립국악학교 강사·해금), 구성희(호남대학교 겸임교수·소프라노), 정의영(조선대 4년·소프라노)씨와 이현민(조선대 1년·플루트), 조희준(송원초 6년·피아노)양, 이대원(살레시오초 6년·성악)군이 협연한다.

지난 1984년 창단된 유진교향악단은 하계 관현악 캠프,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한 교향악의 밤 등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광우병 파동 ... 건강한 먹거리 관련 책들 봇물

출판가, 식탁에 눈 돌리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논란과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안전한 먹을 거리를 위한 관련 책을 다룬 음식 관련 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우병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전문서적에서부터 보통 사람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꼬집는 책까지 다양하다.

▲밥상에서 찾는 건강=전북 임실에서 '녹색마을 자연학교'라는 황토집을 짓고 살고 있는 이태근씨의 '밥상혁명'(더난출판·1만2천원)은 자연식 건강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그는 "골고루 먹지 말고 단순하게 먹어라, 규칙적으로 먹지 말고 자유롭게 먹어라, 육류섭취를 줄여라"고 조언한다.

그는 짧은 시절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의사로부터 "변역역제를 먹지 않으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그는 약을 먹지 않고 매일 한끼만 먹는 자연식 건강법으로 병을 이겨냈다. 책을 통해 그는 "골고루 먹느라 너무 많이, 너무 영양가 높게 먹으면 몸이 병들고, 육·해·공에서 나는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개밥'을 먹는 것과 다를 없다"고 말한다. 또 물을 많이 마셔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꼬집는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끈적이가 슬고 염증이 생긴다는 것이다. 탄 것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상식도 뒤집는다.

'독소-죽음을 부르는 만찬'(랜덤하우스·1만5천원)은 프랑스의 프리랜서 시사전문기자인 윌리엄 레이몽이 쓴

몸에 해로운 식습관과 독성물질에 대한 이야기다. 비만과 식중독, 암, 당뇨, 심장병 등의 질병은 미국식 식품산업의 부패고리에서 발생한다며 적나라한 사례를 통해 위험을 경고한다.

전남과학대학 김정숙(호텔조리김치발효과) 교수의 '식탁 위의 보아 건강음식 200가지'(아카데미북·1만8천원)는 건강 음식 이야기이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민간요법 등을 곁들여 감칠맛 있게 풀어냈다.

▲광우병, 얼마나 위험한가='원자폭탄 만들기'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리처드 로즈의 '죽음의 향연'(사이언스북스·1만1천6백원)은 광우병의 비밀을 추적한 책이다. 과학적 접근으로 광우병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광우병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칼튼 가이더스, 존 콜린지, 퍼트리샤 머즈 박사 등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직접 면담해 꼼꼼하게 인터뷰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우병을 비롯해 원인 물질로 알려진 프리온 단백질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광우병 병원체는 절대 퇴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세포화학 분자생물학 분야 전문가인 콰커러 박사의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고려원북스·1만7천원)는 지난 2003년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와 진실을 파헤친다. 저자는 프리온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닭과 돼지들조차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밥상혁명' '죽음의 향연' 등 기존 잘못된 식습관 꼬집고 광우병의 진실 날낱이 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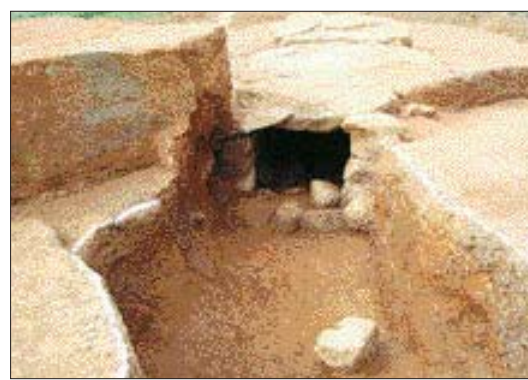
"해남 만의총 백제 웅진시대 무덤"

광주국립박물관, 백제유물 대량 발굴

정유재란 당시 조선 의병들의 묘로 알려졌던 해남군 옥천면 흑천리 만의총(사진)이 백제시대 무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15일 "만의총 3호분을 발굴 조사한 결과 백제 웅진시대(475~537년)의 '얕트기식 돌방무덤(횡구식 석실분·橫口式 石室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호분에서는 횡구식 석실과 함께 봉분 주변에 관 도랑인 '주구(周溝)'가 발견됐고, 주구에서는 백제의 것으로 보이는 개배(蓋杯·땀개 달린 잔)와 단경호(短頸壺·목 짧은 항아리)가 나왔다.

조현중 관장은 "백제의 해안지역 무덤 양식과 일본의 무덤 양식이 비슷해 백제의 대외 관계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만의총은 봉분 지름이 24m, 높이 3m 가량의 3개의 무덤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2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이 3호분을 발굴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53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성악>

Table listing winners of the 53rd Hwangnam Arts Festival in the vocal category, including names like 심사위원, 강양은, 이한나, etc.

Table listing winners of the 53rd Hwangnam Arts Festival in the vocal category, including names like 최동부 1,2학년, 최고상, 102 박현빈, etc.

스쿨피아 오케스트라 연주회

19일 광주문예회관

스쿨피아 오케스트라(단장 겸 상임지휘·박문경사진) 16번째 정기연주회가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무소르그스키가 친구의 전립회를 감상하고 그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한 피아노 모음곡인 '전립회의 그림'을 현



악 앙상블곡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또 독일 쾰른 음대에서 수학하고 현재 쾰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객원 단원으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이승희씨가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를 의한 변주곡'을 협연한다. 문의 062-225-229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 theaters including Happy Time,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and 제일 시네마. Lists movies like '나니아연대기', '아이언맨', '스피드레이서' and provides showtimes and contact info.